



석유수출국으로 다시 부상하는 콜롬비아

非OPEC인 콜롬비아는 1986년, 급속한 산유량 신장을 보임으로써 세계 석유무대에 재등장,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PIW지는 최근 콜롬비아 에너지장관, Ecopetrol社의 총재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밀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여기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중 앞으로의 생산 전망, 탐사활동의 유지, 계획중인 수출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해 요약해 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1. 생산전망

콜롬비아는 최근 石油수출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장기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2000년대에도 현 수출량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생산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1990년 이전에 산유량은 50만b/d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原油와 석유제품 수출량 19만b/d도 50%이상 증가되어 수출량은 30만b/d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 Cano Limon의 경질유 산유량을 추가로 3만b/d이상 증가시키려는 콜롬비아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산유량은 금년 여름에 가면 현재의 36만b/d수준을 약간 상회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파이프 라인이 완성될 경우 12만b/d에 달하는 중질유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의 석유정책은 실용주의이다』라는 Peny 에너지장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콜롬비아는 자국의 원유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탐사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외국석유회사와의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일환으로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같은 인접 OPEC국가와 탐사활동 및 마케팅에 관한 공동협정을 추진해 왔는데, 에콰도르의 오리엔테 지역과 콜롬비아 국경지역의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킨 것이라든지 베네수엘라와 연료유 판매의 공동조정등이 그것들이다. 이렇게 콜롬비아는 석유수입국이었던 1970년대에는 석유위기의 큰 타격을 받았으며, 석유수출국으로 재등장한 1986년에는 油價폭락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야만 했다.

2. 탐사노력의 증대

콜롬비아 정부가 탐사확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연간 4%에 달하는 국내石油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수출물량의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1억배럴의 신규 매장량을 확보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탐사활동으로 미루어 이러한 매장량확보가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배경으로 지난해 탐사활동 및 2차 회수활동으로 石油매장량이 2억배럴이 증가됐고, 금년에도 총 1억배럴에 달하는 유전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정부의 휘발유 가격인상을 통한 수요감축정책등을 들 수 있다.

옥시덴탈社가 Cano Limo 대유정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달라져 1984년이래 콜롬비아 석유매장량은 4배이상 증가한 20억배럴에 달했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는 국영 Ecopetrol社를 통해 시추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외국 석유사에게 새로운 계약조건과 시추지역을 제시함으로써 1991년까지 매년 60개의 유정을 시추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탐사정은 82년에 73개로 가장 많았는데, 점차 감소

● 콜롬비아 정부가 탐사확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연간 4%에 달하는 국내石油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수출물량의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1억배럴의 신규매장량을 확보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탐사활동으로 미루어 이러한 매장량 확보가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

해 작년에는 30개에 머물렀다. 콜롬비아정부는 시추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1,5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시추지역에 대해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국영 Ecopetrol社가 추진하는 시추활동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5배가 많은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새로운 위험분담 계약은 외국 석유회사들에게 시추지역을 제공하고 시공할 경우, 생산량의 대부분을 갖는 대신 Ecopetrol에 탐사비용을 분할지급한다는 것인데, 이 계약은 중소규모 석유회사들에게 매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이저들은 여전히 탐사비용을 부담하고 생산량의 40%를 소유하는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올해 콜롬비아는 기존 77개 합작계약에 5개의 위험 분담계약외에 추가로 새로운 22개의 계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밖에 Ecopetrol社 단독으로 20개의 유정을 시추하게 될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합작 파트너에게 생산原油의 인출에 대한 권리와 파이프라인 운영에 대한 그들의 역할 등을 보장해 주는 약속을 했다. 국영 Ecopetrol社는 국내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대책으로 파트너로부터 석유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현재 콜롬비아의 국내수요는 2만b/d의 휘발유 수입량에 상당하는 原油의 22만b/d의 원유량에 해당한다. Ecopetrol社에 공동 소유의 파이프라인 운영권을 부여하는 법령에 대한 논쟁이 해결되었고, 原油생산이 임박한 Llanos 중앙지역과 Huila 지역에 새로운 송유관 건설이 가속 추진되고 있다.

3. 수출 마케팅전략

Cano Limo 原油가 美國으로 처녀수출된지 만 1년후에도 콜롬비아는 수출판매 전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것은 석유시장의 불확실성과 지난 18개월동안에 일어났던 석유가격의 급변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국영 Ecopetrol社는 현재 原油수출분의 약 60%를 외국 정유업자

에게 직접 판매하고 나머지 40%는 중간거래상이나 현물 시장에 내다 팔 계획이다. 1985년 12월 상업개시된 AP^o 30인 Cano Limon 경질유는 태평양 연안에서 생산되는 1만 5천b/d의 Orito 原油를 제외한 전 수출량을 충당하고 있다. Ecopetrol社는 카리브해에서 선적된 Cano Limon유의 첫번 가격입찰에서 외국지분 참여사보다 배럴당 20-30센트씩 적게 결정되었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는 옥시덴탈이나 셸의 판매가격에 거의 접근시킬 수 있었다. 이전의 Ecopetrol社의 네트백 거래는 다른 거래와 비교해 볼 때 배럴당 40-50센트씩 손해를 보았었다.

콜롬비아정부는 멕시코처럼 Cano Limon油의 가격을 OPEC의 고정유가제도를 회피하고 美國 걸프灣에서 알라스카 노드슬러프 현물가격에 연동된 가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copetrol社는 해외로 발을 넓히기 위해 유럽의 구매업자나 이스라엘과도 교섭을 벌였지만 운임등으로 인한 가격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알라스카 원유는 WTI유종과 질이나 휘발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결정의 지표가 되고 있다.

Ecopetrol社는 올해 자국의 Cano Limon유 수출분 5만b/d의 가격을 배럴당 평균 17-17.50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5만b/d의 연료유 수출과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480마일에 달하는 Cano Limon유 수출용 파이프라인에 가해진 게릴라들의 공격으로 선적이 두 번씩이나 지연되었지만, 이런 것이 공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옥시덴탈과 셸은 자사 소유분 원유를 대부분 美國 걸프灣의 정유업자에게나 현물 시장에 재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셸은 트리니다드에서 스파트베이스로 Cano Limon유를 얼마간 정제했으며, 캐나다 동부의 신설 Brunswick 정유공장에서 정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PIW)